주요개념 : 중학생, 흡연, 지식, 태도

중학생의 흡연에 대한 지식 및 태도

김 신 정*·양 순 옥*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세계보건기구(WHO)는 1988년에 5월 31일을 「세계 금연의 날: World's No-Tobacco Day」로 선포하고 담배로부터 인류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사회적 규범으로 금연운동을 장려함으로써 건강한 사회를 추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에 1990년에는 세계 금연의 날 주제를 「청소년과 어린이를 담배에서 구하자」로 정하여 세계적으로 청소년의 흡연 문제를 다루었다. 그러나 청소년의 흡연문제가 점차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1998년에는 세계 금연의 날 주제를 「담배 없이 자라는 건강한 청소년」으로 선정함으로써 청소년에게 흡연을 부추기는 행위는 잘못된 것임을 경고하고 청소년은 광고로 인해 생기는 흡연욕구에 대한 유혹조차도 없이 성장해야 할 권리의 내용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우리 나라는 청소년 흡연률이 매년 증가되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1999년 한국 금연운동협의회에서 실시한 전국 중, 고등학생의 흡연실태에 의하면 중학생의 흡연률은 남자가 6.2%, 여자가 3.1%로 나타났으며 고등학생의 흡연률은 남자가 32.6%, 여자가 7.5%로 나타났는데(한국 금연운동협의회 2000), 청소년 중에서도 고등학생보다는 중학생,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의 흡연율이 급격히 증가하는 현상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급증하는 청소년기의 흡연문제는 국민의 건강문제와 청소년의 비행의 관점에서 고려해 볼 때 심각한 사회문제 중의 하나로 대두되고 있다(임소연,1996). 건강측면에서는 흡연을 조기에 시작할수록 심 혈관질환 및 각종 암에 대한 위험도가 높고 특히 청소년기에 흡연의 시작은 세포가 미성숙하기 때문에 폐기능을 저하시키고 혈중 지질치의 이상을 유발 할 수 있으며 니코틴 중독이 더 잘 되어 성인기로 이어지는 흡연습관 형성에 중요한 결정요인이 되므로 건강피해가 더욱 커지게 된다는 것이다(박영규, 강윤주 1996: Hunter, 1986). 청소년 비행의 관점에서는 흡연기간의 장기화가 술이나 다른 약물 남용의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에 청소년의 흡연문제는 다른 약물사용 및 중독에 이르게 되는 관문의 역할을 하여 청소년 비행의 첫 걸음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전국대학 보건관리학 교육협의회, 1996: Torabi et al, 1993). 이러한 시각은 청소년 흡연예방 관리사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시사해 주고 있다.

최근 가장 효율적인 흡연억제 방안으로 고려되는 것 중의 하나가 흡연 예방교육 프로그램이다. WHO(1998)는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인식됨에 따라 프로그램을 계획하는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흡연의 유해성에 대한 대상자들의 지식, 흡연태도를 포함한 흡연조사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 한림대학교 간호학과(교신저자 김신정 E-mail : kimsj@hallym.ac.kr)

현재 우리 나라 청소년의 흡연율은 역사상 가장 높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청소년들이 30-40년 후에 흡연으로 인해 받을 고통, 불행, 질병, 사망 등은 개개인과 가족의 불행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커다란 손실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청소년의 흡연과 관련된 문제는 우리 나라 국가 건강문제 중 가장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전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 나라에서 중학생 대상의 흡연예방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시급한 실정과 청소년 중 중학생의 흡연률 증가를 고려하여 중학생 대상의 흡연에 대한 지식과 태도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 나라에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청소년 흡연의 시작시기가 중학생이며 여학생의 흡연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남학생과 여학생을 모두 포함한 중학생의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프로그램의 실시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흡연에 대한 지식을 알아본다.
2) 대상자의 흡연에 대한 태도를 알아본다.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흡연에 대한 지식과 태도의 차이를 알아본다.
4) 대상자의 흡연에 대한 지식과 태도와의 관계를 알아본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중학생의 흡연에 대한 지식 및 태도를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으로는 강원도 춘천에 소재한 1개 남자 중학교와 1개 여자 중학교의 1-3학년에 재학중인 남학생 438명과 여학생 474명을 포함한 총 91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3.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2000년 9월 2일부터 2001년 2월 28일까지이었다. 자료수집 방법은 연구자가 공문을 통해 학교의 허락을 받은 후 본 연구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 보조원 3인을 조사원으로 선정하여 학생들의 특활시간을 이용하여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허락을 받았다. 연구에 대한 참여는 대상자의 선택에 의하여 행하고 강요하지 않았다. 대상자들의 흡연에 대한 지식과 태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질문지법을 이용하였으며 자료수집은 조사자가 질문지를 직접 배포하여 응답방법을 설명한 후 대상자가 응답하게 한 후 그 자리에서 바로 회수하였다. 대상자가 질문지를 작성하는데는 평균 15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4. 연구도구

중학생의 흡연에 대한 지식과 태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는 WHO(1982)의 흡연에 대한 조사방법회의에서 발간된 Guidelines for the content of tobacco smoking surveys of the general population의 설문지를 흡연에 대해 연구와 실무경험이 있는 교수 2인, 대학원 박사과정생 3인, 학교 양호교사 2인을 통해 내용 타당도를 측정하고 남자 중학생 39명과 여자 중학생 40명씩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함으로써 도구를 수정하여 구성된 도구를 사용하였다. 흡연에 대한 지식은 23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흡연에 대한 태도는 2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흡연에 대한 지식에 있어서는 대상자가 맞게 응답한 경우는 1점을 배정하였으며, 틀리거나 모르는 경우는 0점으로 처리하였다. 흡연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도 바람직한 태도를 보인 문항에 대해서는 1점을 주었으며 바람직하지 못하거나 모르는 경우는 0점으로 처리하였다. 그리하여 흡연에 대한 지식은 0- 23점, 흡연에 대한 태도의 가능한 점수의 범위는 0- 20점이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 Cronbach's α를 측정한 결과, 흡연에 대한 지식은 .8393, 흡연에 대한 태도는 .8810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5.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7.5 프로그램으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흡연에 대한 지식, 태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으며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흡연에 대한 지식과 태도의 차이는

t-test와 ANOVA로, 대상자의 흡연에 대한 지식과 태도와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으로 분석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는 중학교 1-3학년에 재학중인 중학생 총 912명으로서 남학생이 438명으로 48.0%, 여학생이 474명으로 52.0%를 차지하였다. 학년은 1학년이 37.0%로 가장 많았고 3학년이 33.8%, 2학년이 29.3%의 순이었다. 아버지의 직업으로는 기술직이 28.6%로 가장 많았으며 가족 중 담배를 피우는 사람으로는 아버지가 66.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할아버지가 35.3%, 할머니가 9.2%, 형제가 4.8%, 어머니가 1.5%를 차지하였다. 아버지의 학력으로는 고졸이 52.8%로 가장 많았으며 어머니의 학력도 고졸이 60.2%로 가장 많았다. 친구 중 흡연을 하는 친구가 있다는 경우는 37.5%, 없다는 경우는 62.5%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흡연경험은 있다는 경우가 19.8%를 차지하였으며 현재 흡연습관으로는 안 피운다가 92.4%, 가끔 피운다는 경우가 7.3%, 자주 피운다는 경우가 0.3%이었다. 현재 흡연을 하고 있거나 흡연 경험이 있는 경우, 대상자가 현재까지 피운 흡연량이 100개피(5갑)가 넘는 경우가 24.7%를 차지하였으며 흡연 시작시기로는 중학교 1학년이 27.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초등학교 5학년 이전이 24.4%, 중학교 2학년이 22.1%, 초등학교 6학년이 19.2%, 중학교 3학년이 7.0%으로 나타났다. 담배를 끊은 경우, 금연기간은 6개월 미만이 39.3%로 가장 많았으며 2년 이상이 25.4%, 6개월 이상 - 1년 미만이 19.7%, 1년 이상-2년 미만이 15.6%로 나타났다.

2. 대상자의 흡연에 대한 지식

대상자의 흡연에 대한 지식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결과, 평균 57.01점으로 남학생이 58.52점으로 여학생의 55.62점보다 높게 나타났다<표 1>. 대상자의 흡연에 대한 지식 점수 분포를 살펴볼 때,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한 경우는 남학생은 51-60점으로 18.8%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61-70점이 15.7%, 41-50점이 12.4%의 순이었고 여학생은 61-70점이 23.8%, 51-60점이 16.1%, 41-50점이 13.7%의 순이었다.

이를 문항별로 살펴보면 전체 문항의 평균은 .57로 나타났다<표 2>.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낸 문항은 「담배를 직접 피우지 않더라도 옆에서 다른 사람이 피는 담배연기를 마시면 건강에 해롭다」가 .92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담배에는 니코틴이라는 유해물질이 들어있다」가 .89, 「흡연을 일찍 시작할수록 건강상의 피해가 더 크다」가 .82로 나타났다. 반면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낸 문항은 「담배를 피우면 스트레스가 해소된다」가 .25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담배에는 일산화탄소라는 유해물질이 들어있다」가 .29, 「담배의 성분 중 폐암 등 각종 암을 일으키는 것은 타르이다」가 .39의 순으로 나타났다.

3. 대상자의 흡연에 대한 태도

대상자의 흡연에 대한 태도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결과, 평균 68.08점으로 여학생이 71.98점으로 남학생

<표 1> 대상자의 흡연에 대한 지식 (100점 만점)

점수 범위	남학생		여학생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0- 10	11	2.6	8	2.7
11- 20	21	5.0	17	3.6
21- 30	19	4.5	17	3.6
31- 40	42	10.0	64	13.5
41- 50	52	12.4	65	13.7
51- 60	79	18.8	76	16.1
61- 70	66	15.7	113	23.8
71- 80	49	11.6	55	11.6
81- 90	43	10.2	33	7.0
91- 100	38	9.0	21	4.4
M(SD)	58.52 (23.04)		55.62 (20.85)	

<표 2> 각 문항별 대상자의 흡연에 대한 지식

번호	내 용	남학생 M(SD)	여학생 M(SD)	전체 M(SD)
1	담배의 중독성 및 습관성을 일으키는 성분은 니코틴이다.	.72(.45)	.55(.50)	.63(.48)
2	담배를 피우면 운동능력이 떨어진다.	.66(.47)	.51(.50)	.58(.49)
3	담배를 피우면 스트레스가 해소된다.	.24(.43)	.27(.44)	.25(.44)
4	담배를 피우면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는다.	.55(.50)	.45(.49)	.50(.50)
5	담배를 조금씩 피우는 것은 건강에 해롭지 않다.	.50(.57)	.57(.49)	.54(.53)
6	담배의 성분 중 폐암 등 각종 암을 일으키는 것은 타르이다.	.47(.50)	.32(.47)	.39(.49)
7	일반적으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피우지 않는 사람보다 일찍 죽는다.	.69(.46)	.68(.47)	.69(.46)
8	담배를 직접 피우지 않더라도 옆에서 다른 사람이 피는 연기를 마시면 건강에 해롭다.	.90(.30)	.93(.25)	.92(.28)
9	임신 중에 담배를 피우면 태아의 체중은 감소된다.	.44(.50)	.39(.49)	.41(.49)
10	흡연을 일찍 시작할수록 건강상의 피해가 더 크다.	.82(.38)	.81(.39)	.82(.39)
11	하루 한 개피 정도 흡연하는 것은 건강상 피해가 거의 없다.	.49(.50)	.48(.50)	.49(.50)
12	연기를 들여마시지 않고 뻐끔 담배만 피우면 건강에 해롭지 않다.	.42(.49)	.45(.50)	.43(.50)
13	담배를 피우면 피우지 않는 사람보다 자주 아프게 된다.	.41(.49)	.50(.50)	.46(.50)
14	어른은 담배를 피워도 건강에 크게 해롭지 않다.	.68(.47)	.77(.42)	.73(.45)
15	담배를 피우면 피부가 건조하고 거칠어진다.	.38(.49)	.55(.49)	.47(.50)
16	담배를 피우면 가래가 많이 생긴다.	.63(.48)	.69(.46)	.66(.47)
17	담배를 피우면 이가 누렇게 변하고 입에서 냄새가 난다.	.71(.45)	.68(.47)	.70(.46)
18	담배를 피우면 호흡기 질환에 잘 걸린다.	.64(.48)	.61(.49)	.63(.48)
19	담배를 피우면 심장기능이 약해진다.	.60(.49)	.58(.49)	.59(.49)
20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은 법률위반이다.	.53(.54)	.35(.48)	.44(.52)
21	담배에는 니코틴이라는 유해물질이 들어있다.	.91(.30)	.87(.34)	.89(.32)
22	담배에는 타르라는 유해물질이 들어있다.	.63(.48)	.54(.50)	.58(.49)
23	담배에는 일산화탄소라는 유해물질이 들어있다.	.36(.49)	.23(.42)	.29(.46)
	전 체	.58(.23)	.56(.21)	.57(.22)

<표 3> 대상자의 흡연에 대한 태도 (100점 만점)

점수 범위	남학생		여학생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0-10	25	6.1	15	3.2
11-20	12	2.9	12	2.5
21-30	25	6.1	12	2.5
31-40	25	6.1	17	3.6
41-50	30	7.4	24	5.0
51-60	42	10.3	35	7.3
61-70	53	12.9	62	13.0
71-80	87	21.3	121	25.6
81-90	74	18.2	105	22.1
91-100	35	8.6	71	15.0
M(SD)	63.54 (26.12)		71.98 (22.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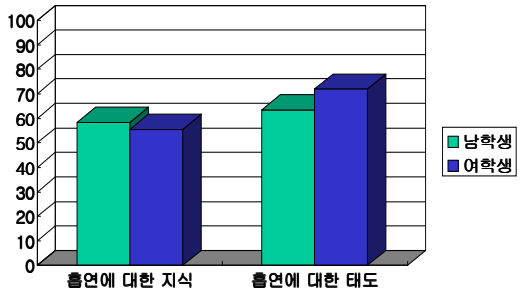
의 63.54점보다 높게 나타났다<표 3>. 대상자의 흡연에 대한 태도 점수 분포를 살펴볼 때,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한 경우는 남학생은 71-80점이 21.3%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81-90점이 18.2%, 61-70점이 12.94%의 순이었고 여학생은 71-80점이 25.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81-90점이 22.1%, 91-100점이 15.0%의 순이었다.

이를 문항별로 살펴보면 전체 문항의 평균은 .68로 나타났다<표 4>.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낸 문항은 「부모님과 선생님께서는 아이들이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가 .8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은 금지되어야 한다」가 .82로 나타났고 「친한 친구가 담배를 피우면 같이 피울 수 있다」가 .81의 순으로 나타났

<표 4> 각 문항별 대상자의 흡연에 대한 태도

번호	내 용	남학생 M(SD)	여학생 M(SD)	전체 M(SD)
1	형제나 친구가 담배를 피우면 말리겠다.	.63(.48)	.80(.40)	.71(.45)
2	어른이 되면 담배를 피울 생각이 있다.	.64(.48)	.85(.36)	.75(.43)
3	어른들이 담배를 피우는 것은 괜찮다.	.65(.48)	.76(.43)	.71(.46)
4	친한 친구가 담배를 피우면 같이 피울 생각이 있다.	.77(.42)	.84(.36)	.81(.40)
5	누군가가 담배를 피워보라고 권유하면 거절하겠다.	.76(.43)	.85(.36)	.80(.40)
6	담배를 피워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피워보겠다.	.72(.45)	.82(.38)	.77(.42)
7	담배를 피우면 기분이 좋아진다.	.29(.46)	.32(.47)	.31(.46)
8	담배가 해롭다고 말들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해롭지 않다.	.62(.49)	.77(.42)	.70(.46)
9	담배를 피우는 사람에게서는 좋지 않은 냄새가 난다.	.64(.48)	.61(.49)	.62(.48)
10	담배 피우는 모습이 멋있어 보인다.	.63(.48)	.70(.46)	.67(.47)
11	담배광고는 금지되어야 한다.	.44(.50)	.45(.49)	.45(.50)
12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담배 심부름을 시켜도 된다.	.73(.46)	.80(.39)	.77(.42)
13	담배 자판기 설치는 금지되어야 한다.	.61(.49)	.55(.49)	.58(.49)
14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은 금지되어야 한다.	.80(.48)	.84(.37)	.82(.38)
15	담배를 피우면 어른스러워 보인다.	.71(.46)	.83(.38)	.77(.42)
16	호기심에 한 두 번쯤 담배를 피우는 것을 괜찮을 것이다.	.58(.50)	.68(.47)	.63(.48)
17	외제 담배가 국산 담배보다 품질이 좋아서 몸에 덜 해로울 것이다.	.49(.50)	.53(.49)	.51(.50)
18	텔레비전이나 잡지에서 담배 피우는 장면이 나오면 담배를 피우고 싶은 생각이 든다.	.66(.48)	.79(.41)	.72(.45)
19	부모님과 선생님께서는 아이들이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75(.43)	.90(.30)	.83(.38)
20	남자는 담배를 피워도 상관없지만 여자는 절대로 담배를 피워서는 안된다.	.43(.50)	.70(.46)	.57(.49)
	전 체	.63(.26)	.72(.23)	.68(.25)

다. 반면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낸 문항은 「담배를 피우면 기분이 좋아진다」가 .31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담배 광고는 금지되어야 한다」가 .45, 「외제 담배가 국산 담배보다 품질이 좋아서 몸에 덜 해로울 것이다」가 .51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1> 남녀 중학생의 흡연에 대한 지식, 태도

4.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흡연에 대한 지식과 태도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흡연에 대한 지식과 태도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표 5>. 대상자의 흡연에 대한 지식은 대상자의 학년(F=3.218, p=.041), 흡연행동에 대한 생각(F=3.424, p=.017), 흡연의 해독에 대한 생각(F=17.202, p=.000), 현재 음주정도(F=3.555, p=.029)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대상자의 흡연에 대한 태도는 대상자의 학년(F=20.520, p=.000), 성별(t=-5.073, p=.000), 어머니의 흡연여부(t=-2.405, p=.035), 형제의 흡연여부(t=-5.022, p=.000), 어머니의 학력(F=3.730, p=.024), 흡연친구의 유무(t=-9.357, p=.000), 대상자의 흡연경험(t=-12.363, p=.000), 현재의 흡연여부(F=76.643, p=.000), 흡연량(F=6.808, p=.001), 금연기간(F=4.685, p=.004), 흡연 시작시기(F=2.286, p=.049), 흡연행동에 대한 생각(F=17.933, p=.000), 흡연의 해독에 대한 생각(F=58.360, p=.000), 음주정도(F=58.071, p=.000)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대상자의 흡연에 대한 지식은 3학년이 가장 높고 1학년, 2학년의 순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F=3.218, p=.041) 흡연행동에 대한 생각에 따라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경우가 지식이 가장 높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3.424, p=.017). 또한 흡연의 해독에 대한 생각에서는 흡연이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경우,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경우, 심각하지는 않다고 응답한

순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F=17.202, p=.000) 현재 음주정도에 따라서는 현재 마신다는 경우가 지식이 가장 높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3.555, p=.029). 대상자의 흡연에 대한 태도에서는 1학년, 2학년, 3학년의 순으로 태도가 바람직하여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F=20.520, p=.000) 성별로는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바람직한 태도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5.073, p=.000). 대상자의 어머니나 형제에서는 흡연을 하지

<표 5>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흡연에 대한 지식과 태도의 차이

특성 \ 구분	흡연에 대한 지식					흡연에 대한 태도			
	실수	M	SD	t or F	p	M	SD	t or F	p
학년									
1학년	337	57.77	19.73	3.218	0.41	74.89	20.98	20.520	.000
2학년	267	54.19	22.76			64.35	25.14		
3학년	308	58.63				63.84	26.59		
성별									
남자	438	58.52	23.04	1.929	.054	63.54	26.12	-5.073	.000
여자	474	55.67	20.85			71.98	22.80		
종교									
유	608	56.50	21.81	-.946	.345	68.57	24.95	.686	.493
무	279	58.00	22.20			67.34	24.09		
아버지 직업									
무직	29	61.50	21.99			66.55	27.06		
기술직	258	56.81	21.31			69.21	25.13		
사무직	222	56.55	23.21			69.19	23.59		
판매종사자	105	56.51	20.83	.368	.921	66.31	23.59	.319	.946
서비스직	77	56.84	21.97			69.34	26.66		
농, 축, 임, 수산업	80	55.57	22.58			66.77	22.90		
기타.	100	58.15	21.59			66.95	26.66		
아버지 안계심	31	60.06	22.67			67.00	21.68		
아버지 흡연									
예	597	57.87	21.79	1.331	.184	67.97	25.27	-.672	.502
아니오	302	55.80	21.90			69.16	22.98		
어머니 흡연									
예	13	59.90	22.05	.481	.631	45.83	33.22	-2.405	.035
아니오	851	57.01	21.43			68.98	23.83		
형제 흡연									
예	41	55.70	20.43	-.330	.741	45.88	29.55	-5.022	.000
아니오	807	56.84	21.50			69.71	23.49		
조부 흡연									
예	298	57.73	22.65	.969	.333	67.02	25.54	-1.385	.167
아니오	545	56.18	20.87			69.48	23.55		
조모 흡연									
예	78	55.98	22.00	-.408	.684	63.82	26.62	-1.651	.102
아니오	770	57.03	21.32			69.06	23.88		
아버지 학력									
중졸 이하	130	56.93	20.54	.730	.482	65.58	26.63	1.164	.190
고졸	466	56.42	23.18			67.65	24.87		
대졸 이상	308	58.37	20.50			70.05	23.49		
어머니 학력									
중졸 이하	212	55.79	21.21	1.659	.191	65.60	26.13	3.730	.024
고졸	542	56.75	22.67			67.87	24.54		
대졸 이상	146	59.96	20.07			72.87	22.96		

<표 5>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흡연에 대한 지식과 태도의 차이(계속)

특성 / 구분	흡연에 대한 지식					흡연에 대한 태도				
	실수	M	SD	t or F	p	실수	M	SD	t or F	p
흡연 친구										
유	342	57.10	22.56	.056	.955		58.32	27.97	-9.357	.000
무	569	57.01	21.55				73.75	20.66		
흡연 경험										
유	180	52.96	23.20	-2.735	.006		45.95	27.58	-12.363	.000
무	730	57.97	21.47				73.52	20.63		
현재 흡연										
아니오	840	57.40	21.83	2.497	.083		70.73	22.77	76.643	.000
가끔	66	52.27	22.99				36.92	24.15		
자주	3	40.60	13.29				6.67	11.55		
현재까지 흡연량(5갑이상)										
예	46	54.47	26.60	1.671	.191		38.22	23.46	6.808	.001
아니오	116	55.21	24.84				51.91	27.83		
모름	24	45.28	21.88				34.38	28.06		
금연기간										
6개월 미만	48	50.03					40.42	28.85		
6개월-1년	24	60.18		1.111	.348		60.65	22.38	4.685	0.004
1년- 2년	19	56.04					59.47	25.43		
2년 이상	31	55.43					56.79	27.53		
흡연 시작시기										
초등학교 5학년 이전	42	34.53	23.70				49.34	32.55		
초등학교 6학년	33	57.23	21.11	.571	.722		54.84	27.07	2.286	.049
중학교 1학년	47	51.07	21.46				47.02	27.22		
중학교 2학년	38	53.23	25.61				38.92	20.62		
중학교 3학년	12	46.40	26.84				31.67	29.72		
흡연행동에 대한 생각										
개인적인일이므로상관 안함	336	57.11	22.95	3.424	.017		65.61	24.61	17.933	.000
남에게 피해 안주면 무방함	205	53.05	22.80				61.92	25.82		
바람직하지 못함	363	59.25	20.34				73.75	23.06		
흡연의 해독에 대한 생각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386	59.99	23.20	17.202	.000		65.85	25.12	58.360	.000
심각하지 않음	55	41.84	20.00				38.06	25.63		
나쁜 영향을 미침	463	56.51	20.41				73.38	21.44		
현재 음주										
전혀 마시지 않음	736	57.62	21.93	3.555	.029		72.20	22.23	58.071	.000
지금은 안 마심	83	50.86	20.88				50.70	27.27		
현재 마심	92	57.87	22.23				50.67	27.41		

않는 경우가 하는 경우보다 태도가 바람직하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t=-2.405, p=.035; t=-5.022, p=.000) 어머니의 학력이 대졸 이상의 집단이 중졸 이하나 고졸집단에 비해 흡연에 대한 태도가 바람직하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3.730, p=.024). 또한 흡연친구가 없는 경우가 있는 경우보다(t=-9.357, p=.000), 흡연경험이 없는 경우가 있는 경우보다(t=-12.363, p=.000), 현재 흡연을 하지 않는 경우가 흡연을 하는 경우보다 흡연에 대한 태도가 유의하게 바람직하게 나타났다(F=76.643, p=.000). 현재까지의 흡연량에 있어서는 100개피(5갑)가 안 되는 경우가 흡연에 대한 태도가 가장 바람직하게 나타났으며(F=6.808, p=.001) 담배를 끊은 경우는 금연기간이 6개월- 1년 미만인 경우가(F=4.685, p=.004), 흡연 시작시기에 있어서는 초등학교 6학년에 시작한 경우가 흡연에 대한 태도가 가장 바람직하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2.286, p=.049). 흡연행동에 대한 생각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경우가(F=17.933, p=

.000), 흡연의 해독에 대한 생각에서는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경우가(F=58.360, p=.000), 현재 음주정도는 전혀 마시지 않는 경우가 흡연에 대한 태도가 가장 바람직하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58.071, p=.000).

5. 대상자의 흡연에 대한 지식과 태도와의 관계

대상자의 흡연에 대한 지식과 태도와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표 6>. 대상자의 흡연에 대한 지식과 태도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r=.467, p=.000), 이를 통해 대상자의 흡연에 대한 지식이 높을수록 흡연에 대한 태도가 바람직함을 알 수 있다.

<표 6> 흡연에 대한 지식과 태도와의 관계

	흡연에 대한 지식	
흡연에 대한 태도	r = .467	p= .000

Ⅳ. 고 찰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볼 때, 아버지의 66.4%가 흡연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과반수에서 나타난 아버지의 흡연은 흡연을 용납하는 가정적 분위기를 형성하여 대상자의 흡연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친구 중 흡연을 하는 친구가 있다는 경우가 37.5%로 높게 나타난 결과를 통해 중학생들의 흡연동기가 호기심이나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 담배를 피우는 경우가 ⅔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보고(김선희, 1997)를 고려해 볼 때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이는 성인의 경우와는 달리 청소년 시기의 흡연은 가정 및 학교 생활환경이나 교우관계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장미영, 박찬웅, 2001; Reimers et al, 1990). 이러한 관련요인들이 상호작용하는 정신 사회적 기전을 통해 흡연행위가 유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대상자의 흡연경험은 있다는 경우가 19.8%를 차지하였는데, 이상은 등(1995)의 연구에서 나타난 11.2%보다는 높은 수치로 이를 통해 해가 갈수록 중학생의 흡연율이 증가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여학생의 흡연경험은 7.8%로, 우리 나라 여중생 평균 흡연률 3.1%(한국 금연운동협의회, 1999; 서미경 2000)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 증가하는 여성 흡연률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성 인구의 흡연 증가요인 중 특히 청소년의 경우, 남자 청소년과 동등해지려는 요인으로 흡연충동을 경험하기도 하는데(오익수, 1993) 이는 남자들도 피우는데 나라고 못 피울 것은 없다라는 왜곡된 양성평등의 가치관에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사려되며 후속 연구를 통해 이에 대한 관련 요인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대상자의 흡연에 대한 지식은 보통정도로 나타났으며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더 높게 나타났는데, 박영규 등(1996)의 연구에서도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지식수준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남학생의 경우 여학생보다 흡연경험이 더 많고 담배에 대한 지식 정도가 높은 것과 그 맥을 함께 하고 있다. 흡연에 대한 지식문항에서는 간접흡연의 피해에 대한 지식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이명숙(1993)과 최혜영(2000)의 연구에서 각각 95.5%와 93.1%가 간접흡연에 대해 잘 알고 있었던 것과 일치하였다. 간접흡연은 발암성 물질보다 100배, 발암성 식품보다는 10,000배 더 위험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으며(전국대학 보건관리학 교육협의회, 1996), 대기오염 안전기준의 약 490배를 초과하게 되는 수준의 위험성을 갖는다고 보고되고 있다(보건복지부, 1999). 또한 대상자들은 담배에 있는 니코틴의 유해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는데, 니코틴은 아편과 같은 수준의 습관성 중독을 일으키기 때문에 약학적으로 마약으로 분류된다(WHO, 1998). 대상자들은 「흡연을 일찍 시작할수록 건강상의 피해가 더 크다」라는 내용에 대해서도 잘 이해하고 있었다. 청소년기의 흡연은 신체적 발달을 저해하고 청소년의 사고능력과 의욕을 감퇴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박명윤, 1992; 한국 청소년개발원, 1997). 즉, 대상자들은 간접흡연의 영향과 니코틴의 유해성, 조기흡연의 유해성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담배를 피우면 스트레스가 해소된다」의 문항은 점수가 가장 낮았으며 담배에 있는 일산화탄소의 유해성이나 타르의 영향에 대해서도 점수가 낮았다. 즉, 대상자들은 흡연으로 인한 스트레스 해소 유무와 일산화탄소, 타르 등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 못하거나 잘못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이에 대한 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흡연을 통해 스트레스가 해소될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은 학업의 부담감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많은 우리 나라의 상황에서 청소년들에게 스트레스 해소방안의 하나로

흡연을 생각하게 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교육이 시급하다고 생각된다. 청소년들이 잘못 알고 있거나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지식 문항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하고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흡연에 대한 지식은 학년(F=3.218, p=.041), 흡연행동에 대한 생각(F=3.424, p=.017), 흡연의 해독에 대한 생각(F=17.202, p=.000), 현재 음주정도(F=3.555, p=.029)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대상자의 흡연에 대한 지식은 3학년이 가장 높고 1학년, 2학년의 순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흡연행동에 대한 생각에 따라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경우가 지식이 가장 높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또한 흡연의 해독에 대한 생각에서는 흡연이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경우,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경우, 심각하지는 않다고 응답한 순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현재 음주정도에 따라서는 현재 마신다는 경우가 지식이 가장 높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상의 결과는 박영규와 강윤주(1996)의 아동의 흡연에 대한 행동, 지식, 태도 조사에서 흡연에 대한 지식 수준과 관련된 요인으로 성별, 종교, 흡연경험, 아버지의 흡연이 유의한 관련성을 보인 것과 다소 다르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학년에 따라 흡연에 대한 지식 정도가 높게 나타난 것은 청소년 보호법과 건강증진법이 시행되면서 중학교 보건교육 과정에 금연, 금주,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등의 권장으로 나타난 결과로 사료되며 지속적인 흡연교육이 보다 조기에 학교교육에서 이루어진다면 그 효과가 크리라고 생각한다.

대상자의 흡연에 대한 태도는 대체적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문항별로 살펴볼 때, 가장 높게 나타난 문항은 「부모님과 선생님께서는 아이들이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가 가장 높게 나타나 중학생에서의 흡연은 제재받아야 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은 금지되어야 한다」로 이를 통해 흡연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흡연에 대한 지식에서 간접흡연의 영향에 대해 지식이 높았던 것과 관련해서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친한 친구가 담배를 피우면 같이 피울 수 있다」가 높은 점수로 나타난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이는 친구의 행동이 모델이 되는 청소년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흡연행동에 있어서도 친구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가장 점수가 낮은 문항은 「담배를 피우면 기분이 좋아진다」로 나타나 흡연을 하면 기분이 괜찮아진다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태도는 흡연에 대한 동경적인 태도로도 해석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는 「담배 광고는 금지되어야 한다」로 이것을 통해 실질적인 흡연억제에 대한 조치에는 찬성하고 싶어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대상자들은 자신을 흡연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갖고 있지만 실제로는 흡연을 하게 될 위험소지는 어느 정도는 갖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대중매체에서의 흡연 및 금연에 대한 태도는 청소년의 흡연행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서미경, 2000), 이러한 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대상자들의 흡연에 대한 태도를 더욱 바람직하게 지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흡연에 대한 태도는 대상자의 학년(F=20.520, p=.000), 성별(t=-5.073, p=.000), 어머니의 흡연여부(t=-2.405, p=.035), 형제의 흡연여부(t=-5.022, p=.000), 어머니의 학력(F=3.730, p=.024), 흡연친구의 유무(t=-9.357, p=.000), 대상자의 흡연경험(t=-12.363, p=.000), 현재의 흡연여부(F=76.643, p=.000), 흡연량(F=6.808, p=.001), 금연기간(F=4.685, p=.004), 흡연 시작시기(F=2.286, p=.049), 흡연행동에 대한 생각(F=17.933, p=.000), 흡연의 해독에 대한 생각(F=58.360, p=.000), 음주정도(F=58.071, p=.000)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박영규와 강윤주(1996)의 연구에서 아동의 흡연태도 정도와 관련된 요인은 성별, 흡연경험, 아버지와 형제의 흡연 경험 등으로 이를 본 연구 결과와 비교해 보면 가족의 흡연유무가 자녀의 흡연태도 형성에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본 연구 대상자는 그들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는 중학생으로(남승희, 1992) 청소년의 흡연 시작과 지속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한국 금연운동협의회, 1999)이라는 점과 주위의 흡연행동에 대한 관찰은 청소년의 특성상, 호기심을 일으켜 또래집단의 압력이나 심리 사회적인 스트레스가 촉발되면 흡연을 시도하게 될 잠재성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또한 학년이 낮을수록 흡연에 대한 태도가 바람직하게 나타난 것은 정미영과 박찬용(2001)의 중, 고등학생의 흡연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에서 개인성격과 가치관이

19%의 변량을 설명하고 있는 것과 연계하여 볼 수 있으며 이는 흡연에 대한 바람직한 태도 형성이 흡연예방을 위한 전제조건임을 시사해 주고 있다. 또한 음주정도에서는 전혀 술을 먹지 않은 대상자가 흡연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으로 나타난 결과는 청소년의 흡연시작이 음주나 다른 약물사용 및 중독에 이르게 되는 관문의 역할(전국대학보건관리학교육협의회, 1996; Torabi et al., 1993)이라는 것을 부분적으로 지지하고 있어 청소년 흡연예방 관리사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간접적으로 나타내 주고 있다.

대상자의 흡연지식과 흡연태도에서는 흡연에 대한 지식이 높을수록 흡연에 대한 태도가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최혜영(2000), 박영규와 강윤주(1996)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요약해 보면 청소년 흡연 예방사업은 일차적으로는 흡연 예방교육을 통해 대상자에게 흡연에 대한 지식을 높임으로써 흡연에 대한 바람직한 태도나 신념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차적으로는 이러한 흡연에 대한 지식 및 태도를 증가시키는 노력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즉, 흡연행위 자체를 억제시키기 위해 대중매체를 통한 흡연예방 및 금연 홍보 실시를 포함한 제반노력과 함께 청소년에게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현재 우리 나라 청소년의 경우 고등학생보다는 중학생의 흡연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에서 흡연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보고(정광모 등, 2000)에 비추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중학생의 흡연을 예방하고 금연교육 프로그램의 실시를 위해 중학생의 흡연에 대한 지식 및 태도를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의 대상으로는 강원도 춘천에 소재한 1개 남자 중학교와 1개 여자 중학교의 1-3학년에 재학중인 남학생 438명과 여학생 474명을 포함한 총 912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자료수집 기간은 2000년 9월 2일부터 2001년 2월 28일까지이었다. 자료수집 방법은 학교를 방문하여 학생들에게 직접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허락을 받아 질문지를 통해 대상자들의 흡연에 대한 지식과 태도를 알아보았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는 WHO(1982)의 흡연에 대한 조사방법회의에서 발간된 Guidelines for the content of tobacco smoking surveys of the general population의 설문지를 내용 타당도를 측정하고 예비조사를 함으로써 도구를 수정하여 구성된 도구를 사용하였는데, 흡연에 대한 지식은 23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흡연에 대한 태도는 2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7.5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평균과 표준편차, t-test와 ANOVA, Pearson's correlation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본 연구 대상자의 가족 중 담배를 피우는 사람으로는 아버지가 66.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할아버지가 35.3%, 할머니가 9.2%, 형제가 4.8%, 어머니가 1.5%를 차지하였다. 친구 중 흡연을 하는 친구가 있다는 경우가 37.5%로 없다는 경우의 62.5%보다 더 많았으며 대상자의 흡연경험은 있다는 경우가 19.8%를 차지하였다. 현재 흡연습관으로는 안 피운다가 92.4%, 가끔 피운다는 경우가 7.3%, 자주 피운다는 경우가 0.3%이었으며 현재 흡연을 하고 있거나 흡연 경험이 있는 경우, 대상자가 현재까지 피운 흡연량이 100개피(5갑)가 넘는 경우가 24.7%를 차지하였고 흡연 시작시기로는 중학교 1학년이 27.4%로 가장 많았다. 담배를 끊은 경우, 금연기간은 6개월 미만이 39.3%로 가장 많았다.
2. 대상자의 흡연에 대한 지식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결과, 평균 57.01점으로 남학생이 58.52점으로 여학생의 55.62점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흡연에 대한 지식 점수 분포를 살펴볼 때,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한 경우는 남학생은 51-60점으로 18.8%로 나타났고 여학생은 61-70점이 23.8%를 차지하였다.
3. 대상자의 흡연에 대한 태도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결과, 평균 68.08점으로 여학생이 71.98점으로 남학생의 63.54점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흡연에 대한 태도 점수 분포를 살펴볼 때,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한 경우는 남학생은 71-80점이 21.3%로 나타났고 여학생은 71-80점이 25.6%로 가장 많았다.
4.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흡연에 대한 지식과 태도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대상자의 흡연에 대한 지식은 대상자의 학년(F=3.218, p=.041), 흡연행동에 대한 생각(F=3.424, p=.017), 흡연의 해독에 대한 생각(F=17.202, p=.000), 현재 음주정도

(F=3.555, p=.029)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대상자의 흡연에 대한 태도는 대상자의 학년(F=20.520, p=.000), 성별(t=-5.073, p=.000), 어머니의 흡연여부((t=-2.405, p=.035), 형제의 흡연여부(t=-5.022, p=.000), 어머니의 학력(F=3.730, p=.024), 흡연친구의 유무(t=-9.357, p=.000), 대상자의 흡연경험(t=-12.363, p=.000), 현재의 흡연여부(F=76.643, p=.000), 흡연량(F=6.808, p=.001), 금연기간(F=4.685, p=.004), 흡연 시작시기(F=2.286, p=.049), 흡연행동에 대한 생각(F=17.933, p=.000), 흡연의 해독에 대한 생각(F=58.360, p=.000), 음주정도(F=58.071, p=.000)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5. 대상자의 흡연에 대한 지식과 태도와의 관계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r=.467, p=.000), 대상자의 흡연에 대한 지식이 높을수록 흡연에 대한 태도가 바람직하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중학생의 흡연에 대한 지식과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광범위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다.
2. 대상자의 발달단계에 따른 학교 흡연예방 프로그램을 개발, 적용할 필요가 있다.
3. 흡연을 경험한 고위험 청소년을 위한 학교 금연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이 요구된다.

참 고 문 헌

강윤주, 서성제 (1996). 청소년 흡연과 관련된 요인, 한국보건교육학회지, 13(1), 28-43

남승희 (1992) 청소년은 누구인가 서울: 서원

박명윤 (1992). 청소년 흡연실태와 대책, 한국 학교보건학괴지, 5(2), 24-30.

박성제, 김기태, 서영성, 김대현, 신동학 (1997). 청소년 금연교육의 성공과 관련된 요인들, 가정의학회지 학술대회 특집호, 1341.

박영규, 강윤주 (1996). 학동기 아동의 흡연행동 및 흡연에 대한 지식·태도 조사, 가정의학회지, 17(9), 798-809.

보건복지부 (1999). 이달의 길라잡이: 청소년 흡연, 건강소식, 22(5), 14-19.

서미경 (2000). 공익광고를 통한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오익수 (1993). 청소년 흡연행동: 습관형성과정·실태·대책. 청소년 대화의 광장.

이규식 (1995). 흡연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주최 제 8회 세계 금연의 날 기념식 및 세미나자료집, 1-24.

이명숙 (1993). 남자 고등학생의 흡연에 대한 지식, 태도 및 경험에 관한 조사연구, 최신의학, 36(2), 77-99.

이상은, 고복자, 강윤주 (1995). 서울시내 초·중·고등학생들의 음주·흡연 및 약물 오·남용 실태에 대한 연구, 학교보건연보, 165-176.

이훈모, 박진희, 정성원, 지수근, 이소정, 장호선 (1997). 중학생의 흡연실태와 흡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가정의학회지 학술대회 특집호, 1396.

임소연 (1996) 금연교육프로그램이 흡연행동변화에 미치는 효과.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전국대학보건관리학교육협의회 (1996). 21세기를 향한 생활과 건강증진. 계축문화사.

장마영, 박찬웅 (2001) 일부지역 중 고등학생의 흡연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대한보건협회학회지, 27(1), 39-52.

정광모, 서일, 오대규, 이광영, 허봉렬, 최진숙 (2000). 흡연과 건강.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최승숙 (1993). 일 실업계 여자 고등학생들의 흡연실태와 태도 및 지식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혜영 (2000). 초등학생의 흡연지식, 흡연태도와 흡연행동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한국금연운동협의회 (1991). 청소년 흡연의 문제와 대책.

한국금연운동협의회 (1995). 제 5차 전국 중, 고등학생 흡연실태에 대한 조사.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연세대학교 예방의학교실 (1997) 한국 중고등학생의 흡연양상의 변화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연세대학교 국민건강증진연구소 (2000) 보건소 금연지도자 교육 교재

한국청소년개발원 (1997). 청소년 문제행동의 이해와 지도. 덕유문화사.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1994). Guidelines for school health programs to prevent tobacco use and addition, Journal of School Health, 64(9),

353-360.
Hunter, S. M., Croft, J. B., Parker, F. C. (1986). Biobehavioral studies in cardiovascular risk development. In : Ber
Son, G. S. editor. Causation of cardiovascular risk factors in children. New York: Raven Press, 223-253.
Reimers T. M., Pomrehn, P. R., Becker, S. L., Lauer, R. M. (1990). Risk factors for adolescent cigarette smoking, Am J Dis Child, 144(1), 1265-1272.
Torabi, M. R., Bailey, W. J., Majd-Jabbari, M. (1993). Cigarette smoking as a predictor of alcohol and other drug use by children and adolescents: Evidence of the gateway drug effect, Journal of School Health, 63(7), 302-306.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DHHS). (1996). Clinical practice guideline number 18. U.S: Government and printing office.
WHO (1982). Guidelines for controlling and monitoring the tabacco epidemic. Geneva: WHO.

- Abstract -

Key concept : Knowledge, Attitude, Smoking, Middle school students

Knowledge and Attitude about Smoking in Middle School Students

Kim, Shin-Jeong·Yang, Soon-Ok**

This study was done to provide basic data to develop smoking prevention and non-smoking education program.

Questionnaire were collected from 438 male, 474 female middle school students at Chunchon, Kwangwon-do from Sep 2, 2000 to Feb 28, 2001. The Questionnaire used to measure subjects' knowledge and attitude about smoking was Guideline for the content of tobacco smoking surveys of the general population by WHO.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SPSS-Win program.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The average score of knowledge about smoking of subjects was 57.01 on the basis of 100.
2. The average score of attitude about smoking of subjects was 63.54 on the basis of 100.
3. In knowledge about smoking,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according to subjects' grade(F=3.218, p=.041), thinking about smoking behavior(F=3.424, p=.017), harmfulness of smoking(F=17.202, p=.000), present drinking(F=3.555, p=.029) and in attitude about smoking, there were statisti cally significant difference according to subjects' grade(F=20.520, p=.000), sex(t=-5.073, p=.000), mother's smoking(t=-2.405, p=.035), brother's smoking(t=-5.022, p=.000), mother's schooling(F=3.730, p=.024), having smoking friend or not (t=-9.357, p=.000), subjects' smoking experience (t=-12.363, p=.000), present smoking(F=76.643, p=.000), quantity of smoking(F=6.808, p=.001), period of stop smoking(F=4.685, p=.004), beginning time of smoking (F=2.286, p=.049), thinking about smoking behavior(F=17.933, p=.000), harmfulness of smoking(F=58.360, p=.000), present drinking (F=58.071, p=.000).
4. There were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subjects' knowledge and attitude about smoking(r=.469, p=.000).

* Department of Nursing, Hallym University